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김경옥(북한대학원대학교)

천리마시대(1956~1972)에 김일성은 농업국가를 사회주의 산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생산력발전은 ‘공산주의 새 인간’으로 개조되고 양성된 북한주민들이 지도자인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에 입각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으켰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업, 농업, 교육 등 모든 사회분야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일으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개조하면서 생산력도 발전시키기 위한 군중운동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스탈린주의체제와는 다른 북한 나름의 특수한 유형의 사회주의체제를 만들어갔다. 스탈린주의체제와 다른 점은 교육적 인간상에서도 나타난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은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적 인간상의 모델은 천리마기수였다. 스탈린체제에서의 교육적 인간상은 스타하노프형 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천리마기수는 작업반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이끌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사상에 신념을 가져야 하고 기술능력, 문화적 소양을 갖춰야 했다. 천리마기수들은 북한주민들의 성공 모델이었으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체제에 살게 된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는 한국인과 다른 북조선인이 탄생하였다.

주제어: 북조선인, 공산주의적 새 인간, 천리마작업반운동, 천리마기수

1. 들어가며: 천리마시대와 천리마운동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주의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남한과는 질적으로 다른 체제가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북조선인’이 탄생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이나 ‘북조선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북한의 사회체제 유기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뜻하다. 이것을 프롬은 사회적 성격이라고 했다.¹⁾

‘북조선인’의 탄생을 탐구하기 위해서 필자는 천리마시대에 수립된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 천리마작업반운동, 청산리방법, 지도자 숭배가 북한의 교육적 인간상, 교육교양의 내용, 교육교양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로써 북한 사회주의교육교양의 원형이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그 원형을 분석하고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주의교육교양의 원형을 밝히기 위해서 천리마시대에 발행된 『교육학: 사범대학용』과 『김일성저작집』등 북한 원전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원전들을 분석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학적 순환을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로 규정하고, 당시에 사회주의국가로 알려져 있던 국가들과 비교해 보는 비교사회주의 방법을 활용했다.

‘천리마시대’라는 용어는 천리마운동에서 유래한다. 천리마운동은

1) “사회 구성원의 행동이 사회적 패턴을 따르는지의 여부를 의식적으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동을 기꺼이 행하고, 또 문화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도록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형성하는 것이 그 사회적 성격의 기능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에너지를 그 사회의 기능을 계속시킬 목적을 위해 만들어 내고 인도하는 것이 사회적 성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냐』(서울: 문학세계사, 1985), 109쪽.

1956년 12월에 시작되어 3대혁명 소조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1973년 2월 전까지 북한을 대표하는 군중운동이었다. ‘천리마시대’란 1960년 8월 22일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김일성이 스스로 명명한 것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북한 주민들이 자주 활용한 용어이기도 했다. 천리마운동은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총노선이며,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것이다.²⁾

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과 함께 천리마속도가 창조되었다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속도가 창조되는데 그것은 왕왕 ‘새로운 천리마속도’라고 불렸다. 천리마시대에 탄생된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도 항상 ‘새로운 천리마속도’였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창조된 희천속도도 ‘새로운 천리마속도’라고 불렸다.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만리마속도라는 구호도 결국은 천리마속도에 대비해서 등장한 용어로서 만리마속도 역시 ‘새로운 천리마속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역사를 속도창조의 역사라고 본다면 북한이 주장하듯이 천리마는 바로 북한의 상징이기도 하다.³⁾

이 연구에서 사용된 원형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변용되기 전의 형태다. 둘째, 변용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형태 즉 잔영이다. 셋째, 부분적으로는 변용

2) 백재욱,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5).

3)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로동신문』, 2009년 9월 25일;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심화발전되어 온 나라에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천리마조선》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천리마》는 조선의 상징, 조선인민의 기상으로 되었다.” 『광명대백과사전 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7), 6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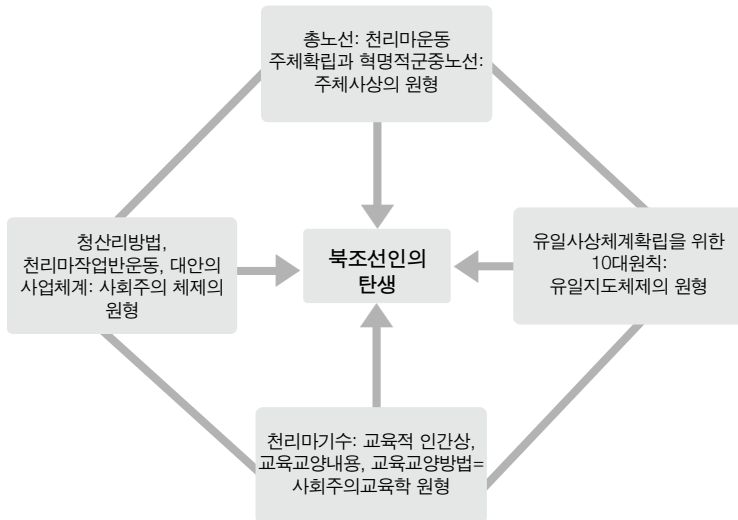
이 되더라도 변용되지 않는 큰 틀 즉 일종의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여기서 원형이란 실제 구현된 모습보다는 원형으로 구상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형이란 일종의 디자인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변용이란 원래의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구성된 것이 원래의 디자인어의 의도대로 구현되었는지의 여부는 이 연구에서는 부차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형은 일시에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성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립되기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

김일성은 자신의 교시와 시범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천리마작업반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시원으로서 항일빨치산의 혁명전통을 내세웠다. 김일성과 항일빨치산 자신들에 의해 미화되고 전형화된 항일빨치산의 혁명전통은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의 유일한 모델로서 제시되었고, 교육교양과 조직사업, 청산리방법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시원적 모델로서 선전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사회주의적 리더십을 갖춘 천리마작업반장을 내세웠다. 작업반은 북한주민들을 공산주의, 집단주의로 교육교양하기 가장 적합한 단위였으며, 천리마작업반장은 김일성과 북한주민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천리마기수가 된다는 것은 곧 김일성에 충실한 지배계층에 편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항일빨치산이 천리마기수의 모델이라고 할

4)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제1의 디자인은 유격대국가이며 제2의 디자인이 가족국가론이며 제3의 디자인이 전통국가론이며 제4의 디자인을 정규군국가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규군국가로 바뀌었지만 유격대국가적 핵심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중의 하나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돌베개, 2006).

<그림 1> 천리마시대 북한의 교육교양 연구모형



수도 있겠지만, 항일빨치산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식민지시대에 항일을 지향점으로 삼았던 항일빨치산의 경험이 사회주의건설시기의 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남북분단, 반제반봉건혁명, 전쟁, 사회주의 혁명을 겪었던 주체로서 산업화와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요구되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이끌어 갈 구체적인 살아 있는 모델은 천리마기수였다고 할 수 있다. 항일빨치산이 전설적인 모델(시원)이고 천리마기수는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천리마기수는 모델이고, 항일빨치산은 모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빨치산이라는 모델은 혁명전통교양에서도 요구되었다. 항일빨치산이 저기(과거)의 존재라면 천리마기수는 여기(현재) 존재하는 이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활용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해서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원형

1958년에 사회주의개조가 완수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 사회주의농업국가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마침 1956년 흐루시초프에 의해서 시작된 스탈린격하(개인숭배비판), 평화공존론, 사회주의 분업화론 등은 사회주의국가들에 파급되어 노선투쟁과 권력투쟁, 내부분열을 불러일으켰다. 소련은 중공업을 통한 산업화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의 노선을 거부하였다. 김일성은 우선 소련의 변화에 호응하고 소련의 요구에 따르고자 했던 소련과의 연안과의 도전을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라고 물리치고 북한주민들을 사회주의혁명으로 몰아세웠다. 다음으로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론을 내세워 사회주의 농업사회인 북한을 사회주의공업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 나섰다. 이런 과정에서 소련과의 연안과는 숙청되었고 1930, 1940년대 항일빨치산투쟁에서 김일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던 김일성계가 권력을 장악했다.

김일성은 주체확립과 혁명적군중노선에 입각한 천리마운동을 일으켜서 북한의 사회주의공업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주체확립이란 소련으로부터 사상,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벗어나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자립노선이자 자력갱생의 길이며, 소수의 적대세력 이외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혁명적 군중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5)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

이러한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은 북한의 현재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사상, 이론,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인 사상, 이론, 방법 중 사상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김일성주의 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라고 불려졌다. 여기서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에서 체계화한 작업 중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5년 4월 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의 김일성의 연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고 말하면서 청산리방법과 천리마운동을 혁명적 군중노선의 발전 또는 구현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1972년 4월 3일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은 보고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을 자기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아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이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아가는 자주적인 입장이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백두연구소 엮음,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I』(서울: 백두, 1988), 163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 군중노선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군중노선입니다.”[양형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 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1972.4.3),” 백두연구소 엮음,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I』, 247쪽].

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2.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관한 이론과 전략전술이다. 3.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과학적 이론이다. 4. 혁명과 건설의 영도원칙과 혁명적 군중노선에 관한 창조적 사상이다.

셋째, 김정일이 1982년에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토대로 해서 1985년에 발행된 주체사상총서(총 10권)는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지도적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집대성한 것이다. 그중 제3권인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는 주 천리마시대에 공식화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제9권인 『영도체계』의 제2절 영도원칙에 1.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 2. 주체확립 3. 혁명적 군중노선의 관철로 들어가 있다.⁶⁾

김일성은 이른바 종파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들과 싸우기 위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수와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새로운 당국가 건설을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지침으로 내세웠으며, 주체확립을 위해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전통을 내세웠다. 김일성은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이 없다면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은 불가능하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도 탄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천리마운동이 주체확립과 혁명적군중노선을 구현한 것이라면 그 내용은 어떤가? 그것은 1965년 발행된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에

6)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체계』(서울: 지평, 1989);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은 사상에서의 주체 (1955), 경제에서의 자립(1956), 정치에서 자주(1957), 국방에서의 자위(1962)순으로 공식화되었다.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84쪽.

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에서 진술하였듯이 천리마운동은 사상혁명을 앞세운 세 가지혁명 즉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⁷⁾

김일성은 그를 위하여 개인적 경쟁의 요소가 많았던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집단주의 경쟁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개조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세 가지 혁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사상혁명 앞세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⁸⁾

선진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생산력발전의 관건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있고 이러한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개조되고 양성된 북한주민들이 지도자인 자신(수령)을 중심으로

7) 백재욱,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 142~143쪽.

8) 주체사상총서 제5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서울: 태백, 1989)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1960년 8월 전국 천리마 작업반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직업동맹중앙 위원회 위원장 리효순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리효순의 보고에서는 기술혁명이 아닌 기술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사상혁명 대신 사상교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사상교양보다는 기술혁신을 앞세웠고, 기술혁신과 사상교양은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음에 비해 문화혁명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항목 없이 기술혁신에 넣어서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는 세 가지 혁명에 대해 아직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 범주화가 정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성격에 대해 북한 내부에 다양한 입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사상, 기술, 문화혁명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리효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데 대하여,”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작업반운동』(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0), 18~48쪽; 이는 직업동맹출판사가 1963년에 발행한 『천리마기수독본』을 봐도 알 수 있다. 천리마작업반 칭호 쟁취운동을 결의한 작업반들의 ‘전망 결의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 결의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강호제 지음,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서울: 선인, 2008), 377~380쪽 재인용.

단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세 가지 혁명 중 사상혁명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사상 교양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사상혁명을 이루어야 김일성을 구심점으로 삼아 북한 주민들이 통일 단결할 수 있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고, 나아가 공산주의 사회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되었다.⁹⁾

수령을 중심으로 통일단결하자는 사상은 북한의 가장 핵심적 특징이고 이러한 사상은 67년이나 74년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세우는 데 토대가 되었고, 2013년에 김정에는 의해 개정

9)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반김일성계, 비김일성계를 청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권력 투쟁, 사상투쟁이었음은 분명하다. 통일단결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표면이라면 그 이면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반김일성계 또는 비김일성계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김일성이 67년 갑산파를 숙청하고 나서야 수령이 되었고 단일지도체계가 유일체제로 바뀌었다는 식의 이종석의 논리에 별 구애를 받지 않고 쓰인 글이다. 왜냐하면 8월 종파사건 이후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계가 장악하였고 그 이후로는 김일성의 교시는 당정책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유일체제의 수령제와는 완전히 다른 단일지도체제로 보기보다는 수령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3), 204~213쪽; 이태섭은 비공식화된 개인적 리더십, 인격적 리더십을 배격하고 공식화된 규범과 절차에 기초한 조직적 리더십, 제도적 리더십을 추구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26~27쪽; 필자의 논문은 이 시기의 차이점을 밝히거나 질적인 차이점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주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시기의 공통점에 근거해서 천리마시대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은 천리마시대의 북한의 수령제란 김연철의 주장처럼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두루두루 나타나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복종현상과 다를 바 없다는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쪽.

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계승되었다.¹⁰⁾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노력동원, 생산력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기도 했지만, 주로 작업반이라는 단위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이었다. 따라서 천리마작업반은 인간개조의 장, 교육교양의 장이기도 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집단주의적 성격은 단적으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알 수 있다.¹¹⁾

이와 같이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적인 교육교양이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개조를 사회주의 건설의 관건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북한적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스탈린주의와 다른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이태섭은 주장한다.

여기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경제 발전(기술적 목표) 그 자체보다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인간적 목표)에서 선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대전환, 노선의 대전환이었다.¹²⁾

이러한 생산력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스탈린의 사회주의 생산양식론

10) 수령을 중심으로 영도체계를 세워 통일단결하자는 사상은 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74년에 발행한 주체사상총서 중 제9권인 『영도체계』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다.

11)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로서, 기존의 천리마운동과는 달리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혁신운동을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킨 것이었다.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112쪽.

12)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116쪽.

으로부터 유래하는데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에 따르면 집단화에 성공한 사회주의국가의 경우에 “사회주의는 혁명적 변혁을 위한 과도기나 이행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기초로 생산력을 향상시키면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로 설정된다.”¹³⁾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주의는 이행기 사회주의의 발전동력으로 계급투쟁과 생산력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꼴이 된다. 그에 반해 모택동은 계급투쟁을 우선시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계급교양을 부수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생산력을 높이고자 했다. 그에 반해, 김일성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급교양을 우선시하면서 계급투쟁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경쟁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성공하려면 일꾼들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개조이전의 일꾼들의 리더십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소극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본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청산해야 할 반사회주의적인 리더십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김일성은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에 맞게 청산리방법(=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어 냈고, 이런 리더십을 갖춘 일꾼들이 천리마작업반

13) 구갑우, “북한연구의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위임, 『북한 연구방법론』(파주: 한울, 2004), 294쪽. 북한의 탈스탈린주의는 스탈린주의의 모델에서 어느 정도 이탈한 신스탈린주의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천리마시대의 북한의 산업화전략을 스탈린주의의 모델을 통해서 고찰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김연철이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탈스탈린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적 현상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이태섭이다. 필자는 이태섭의 논리를 따랐다.

운동을 지원하고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리더십으로서의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도와 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¹⁴⁾

김일성에 의해 혁명적 군중노선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리더십으로서의 인민적 사업작풍의 원천으로 선전되었다. 김일성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부터 당성=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가적 기풍, 인민적 성품이 도출된 것이라 주장하였다.¹⁵⁾

14)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9, 학우서방, 번각 발행, 1971), 165쪽; 주체사상총서 중 제10권에 해당하는 『영도예술』에서는 청산리방법(=혁명적 사업방법)의 하위 항목들이 다소 다르게 범주화되어 나열되었을 뿐 기본내용은 동일하다. 이 책에서는 청산리방법의 기본내용을 ‘1.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 2. 실정을 요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법 3.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 4. 중심고리를 찾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 5.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방법’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북한 학자들은 천리마시대 이후 현재(선군시대)에 이르기 까지 현지도도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나 수령제를 설명할 때 핵심적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혁명적 군중노선이 김일성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한 현지도다. 황재준, “북한의 ‘현지도’연구: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214~237쪽.

15) “인민적 사업작풍에 담겨진 수령의 의도와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에 대한 무조건성의 기풍,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 원칙성, 이신작칙의 기풍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고 있다. 인민적 사업작풍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것으로 하여 또한 인민대중을 존대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품성으로 된다.”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예술』(서울: 지평, 1989), 177쪽.

그리고 청산리방법을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에 적용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만들어졌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자본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없애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로 교체했다. 청산리방법은 당 사업체계를 교양과 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요구했는데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하여 새로운 당 사업체계가 제도화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의 각 단위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독립채산제를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된 이후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장 내 개별적인 당 조직, 개별적인 핵심들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장 전체의 사업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체계는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는 체계이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사업 체계이다.’고 말할 수 있겠다.¹⁶⁾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집단적 소유제가 된 북한의 모든 기업소들과 공장들을 관리하는 공통적인 관리체계였다. 1985년에 북한에서 발행된 주체사상 총서(전 10권) 중의 하나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에 따르면 대안의 사업체계의 지도관리원칙은 1.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밀접한 결합 2.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옳은 배합 3.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체적 지도란 당위원회의 지도인 동시에 기업소와 공장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중적 통제를 뜻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이와 같은 지도관리원칙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리고 농업지도체계를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라 하였지만 이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와 매우 다른 것은 아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농업의 특성, 협동

16) 윤현, “대안 체계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 『근로자』, 제4호 (1963), 3쪽.

적 소유에 맞춰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⁷⁾

대안의 사업체계는 작업반이나 기업소, 농장들이 조직생활과 교육 교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자극제가 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청산리방법은 기존의 교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사회주의적 교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혁명과정이기도 했다.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청산리방법이 북한사회의 여러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김일성이 평소에 요구하였던 사회주의적 교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관철되기 시작한 것 같다.¹⁸⁾

3. 학교에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

북한의 교육학에 따르면 교육은 교원과 학생이 함께 일정한 내용(과학 지식, 기술, 기능)을 숙지하고 숙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은 교원이 학생들과 함께 일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런 가치관에 따르는 인격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교육

17)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서울: 태백, 1989); 북한의 경제관리의 핵심적 요소가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것은 고승효·김연철·차문석·김보근·이정철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승효, 『현대북한경제입문』(서울: 대동, 199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김보근 “대안의 사업체계를 보는 두 개의 눈, 그리고 북한 변화를 진단하는 두 개의 눈,” 『정치비평』, 2001년/하반기;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논문, 2002).

18) 이일경, “김일성원수의 청산리교시와 교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더욱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1961.4.25.),” 백두연구소 엮음,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서울: 도서출판 백두, 1989), 224~256쪽. 참조.

학에서는 이 교육과 교양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공산주의교육에서는 공산주의이데올로기 자체가 과학이며 과학적 지식 자체가 공산주의 철학인 유물변증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식교육과 공산주의사상교양도 또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북한 교육학자들은 이에 더해 교양과 교육을 결합시키는 것이 학생이나 주민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항상 배움의 목표는 집단이며, 조국이고, 당에 대한 충성이라는 뜻으로 의미 부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야 학습과 교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은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고 산업화하여 빨리 선진국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창한 교양적 의미를 매 단위 매 주제마다 김일성교시나 당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하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특징이다.

그러나 교수와 교양의 불가분의 결합관계는 교양과 교육이 결합된 교과서를 만들고, 이러한 교수방법을 일상적으로 교사들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제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금 학생들과의 사업은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알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낮 회의요, 비판이요, 노력동원이요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매일과 같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공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력동원을 제정된 기간보다 더 시키지 말아야 하며 기술학교 학생들의

로력동원은 줄이고 그 시간을 리용하여 교양을 더 잘 하여야 합니다.¹⁹⁾

결국 교양과 교육의 결합은 교육부문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천리마학급, 모범분단 칭호쟁취 운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철되었다.

김일성은 모든 학생이 우등생, 최우등생이 되는 모범학급, 모범학교 칭호 쟁취운동과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천리마작업반처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잘해낸 집단에게 주는 천리마학급, 천리마학교 칭호 쟁취운동을 벌여나갔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완전히 습득시키는 완전학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모범학급, 모범학교, 천리마학급, 천리마학교가 되려면 학습과 실천에서 잘하는 학생이 뒤떨어진 학생들을 도와야 했다.²⁰⁾

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천리마시대의 구호를 학교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공산주의적인 집단을 학생들이 구현한 것으로 여겨진 모범학급, 천리마학급은 기업소와 공장의 천리마작업반의 축소판으로 여겨졌고 모범학급, 천리마학급의 장을 담당했던 학생들은(북한에서는 학급의 장을 분단장이라고 했다) 장래에 천리마작업반장이 될 것을 앞당겨서 연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²¹⁾

19) 김일성,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2.5.3.),” 『김일성저작집 2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89쪽.

20) 스탈린은 시험위주의 학생평가제를 도입하였고, 모택동은 한때 시험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북한은 시험을 존속시키되 모범학급, 모범학교, 천리마학급, 천리마학교칭호 쟁취운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도 평가하도록 했다.

21)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사로청조직들이 핵심을 소년단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워서 넘겨받고 다시 키워서 당에 보내는 식으로 핵심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4. 사회주의교육교양의 원형

1) 교육적 인간상과 천리마기수

공산주의적 인간상과 인간 개조방법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다면 스탈린이 제시한 공산주의적 인간상(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시기의 사회주의 인간상)이란 스타하노프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개조방법은 스타하노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하노프 일꾼들의 특징적인 측면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급료’로 얼마를 받았다 또는 ‘성과급’ 또는 ‘상여금’으로 얼마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일이었다. 아울러 공식석상에서도 자신의 소득이나 상금으로 구입하게 된 소비재, 생활용품들을 자랑스럽게 열거하곤 했다. 1935년 11월 17일 ‘제1차 전국 스타하노프 일꾼 대회’에서 스탈린은 “동무들! 삶은 더 나아졌습니다. 삶은 더 즐거워졌습니다!”고 했는데 이 당시 널리 선전되어 유행하던 경구가 되었다. 1936년 스탈린 헌법에 따라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으로 대거 진출하게 된 스타하노프일꾼들의 사진을 도안으로 제작한 대형 포스터 <누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명인사인가> 중앙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자리 잡고 있다. “재산이나 출신 민족이나 남녀 성별이나 근무 환경이 아니라, 각 시민의 개인적(강조는 인용자) 능력과 노동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합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 생산양식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분배받아야 하는 것은

체계를 똑바로 세우며 청년조직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만들게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전광두·장세훈, 『소년단건설2: 사범대학 사료청지도원 학과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6), 58쪽.

사회적 지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집단적 혁명적 열기 대신에 개인적 업적에 의한 사회이동이 시작된 것이다.²²⁾

그렇다면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에 대한 모택동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대약진운동은 자력갱생과 집단주의운동으로서, 중국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끝낸 직후인 1958년 5월의 중국공산당 8전대회로부터 본격화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전농민의 참여로 “농업은 대채(大寨)를 따라 배우고 공업은 대경(大慶)을 따라 배우자”는 구호아래 대대적인 수리사업이 진행되었고 전 주민이 총동원되어 대규모 건설사업이 벌어졌다. 대채 생산대원이었던 진영귀(1913~1986)는 대채의 척박한 자갈밭을 오로지 인력과 고된 노동에만 의지하여 생산적인 경작지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다.²³⁾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두 중국이 소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발한 대경유전은 중국인민의 자력갱생과 집단주의의 모델이었다. 대경유전 개발에 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대경 ‘10불(十不)’이 있었는데 “‘10불’이란 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② 피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③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④ 조건을 문제 삼지 않는다, ⑤ 노동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⑥ 보수를 생각지 않는다, ⑦ 일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⑧ 자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⑨ 직무의 고저를 두지 않는다, ⑩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⁴⁾

22) 이종훈, “스타하노프 일꾼들의 슬회 속에 나타난 일상,”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3』(서울: 책세상, 2007), 157~158쪽 참조.

23) 모택동은 전중국의 북부와 중부와 가뭄 지구에 이와 같은 공사를 한다면 수천년 동안 중국의 농민들을 괴롭혔던 가뭄과 수토유실(水土流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국의 몇 억 농민들과 천만여 생산대가 대채와 같다면 중국은 공산주의낙원을 건설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모택동은 학대채(學大寨)운동을 일으켰다. L. 루이링거, 『중국을 보는 제3의 눈』(서울: 소나무, 1995), 71쪽.

대경유전을 개발한 생산대는 뚝뚝 뭉쳐 이와 같은 초인적 계율을 지켰다. 이것은 집단주의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대약진 운동에 있어 노력영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인공이 있다. 그는 뇌봉이다. 뇌봉은 고급소학교출신으로 공청단에 가입하여 여러 차례 ‘노동모범’, ‘선진생산일꾼’으로 뽑혔고 1960년에는 군에 입대했다. 그는 스스로를 ‘혁명의 나사못’으로 여기고 “추호도 이기적이 아니고 오로지 남을 위하는 것”을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겼다고 한다. 무순시 인민대표자대회 대표로 선출되었고 입당하였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1962년 2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1963년 3월 모택동은 뇌봉을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웠고, 중국에서 “뇌봉을 따라 배우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여러 편의 뇌봉전기가 출판되었다. 뇌봉전기를 보면 주어진 임무와 규칙에 충실하고 모택동과 당정책의 학습에 충실하며, 오직 모든 것을 바쳐 집단과 인민을 위해 초인적으로 인내하고 노력하는 인물로 군인형의 노동자로 나온다.²⁵⁾

인민해방군인 뇌봉은 스타하노프와 같은 물질적 이익에 충실하고 대접도 받는 인물이 아니지만, 집단의 관리자나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북한은 어떤 유형의 인간을 어떻게 육성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운동이며 이러한 인간개조운동은 공산

24) 고뢰정, “사회주의의 새로운 문명모델로서의 모색: 중국북한사회주의에서의 사회경제 발전모델의 실험,” 최성 위음, 『현대사회주의비교연구』(서울: 학민사, 1990), 233쪽.

25) 최성만박태순 편역, 『뇌봉』(서울: 실천문학사, 1993). 뇌봉은 학습에도 열심이었는데 그것은 모택동사상의 학습이지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은 아니었다.

주의적인 집단주의라는 원리하에 사상혁명을 우선으로 기술혁명, 문화혁명 동시 발전이라는 방향을 택했으며, 집단주의는 군중노선과 조직생활강화(조직사회주의)로 구체화되었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개선운동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²⁶⁾

북한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갖춘 인간을 천리마기수라고 했다. 따라서 천리마기수는 북한이 제시한 공산주의 인간유형이고 천리마작업반 운동은 그러한 공산주의 인간유형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천리마기수란 처음으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으킨 진웅원과 같은 유형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북한의 교육적 인간상은 진웅원과 같은 천리마기수들로서 이들은 소련의 스타하노프나 중국의 뇌봉과는 다른 유형으로서 리더형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의 스타하노프는 소비지향적 기술자였다면, 뇌봉은 금욕적인 군인형 인간이다. 천리마기수들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갖춘 리더형 인간이다. 북한의 천리마기수들은 우선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성과를 올려야 분배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스타하노프는 개인 업적을 중시했고, 뇌봉유형은 자신의 몫에 대해 전혀 신경을

26) ‘조직사회주의’는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에서 이태섭이 북한체제의 특징으로 쓴 용어다.

27) 진웅원: 1924년생 강철용해공 조선인민군에서 제대후 강선제강소에서 용해공, 작업반장, 직장장으로 일했다. 김일성은 55년 12월 28일 강선제강소를 방문했다. 제1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강철과 강재가 매우 긴장된다고 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들의 장애를 물리치고 5개년계획의 첫날 첫 출강에서 용해시간을 3시간 5분이나 더 단축하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5개년계획 첫해에는 6만톤 이상은 생산할 수 없다던 분괴압연기에서 그 2배인 12만 톤의 강편을 뽑아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 밑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다. 그 후 강철직장 직장장이 되었고, 1972년에 김일성훈장, 1960년에 노력영웅칭호를 받았다. 『조선대백과사전 20』(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179쪽 발췌.

쓰지 않았다. 그에 비해 천리마기수들은 자신의 노동현장의 관리자, 조직자, 교사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²⁸⁾

천리마시대에 작업반장은 천리마기수며 다른 사람들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천리마기수를 본받아 언젠가는 천리마 작업반장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요구받았다. 즉 김일성은 모든 사람을 천리마기수 같은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권한을 부여받는 직일관(당직사령)을 돌아가면서 했고, 내부 재산제에 따라 계획을 세우거나 분배를 할 때도 함께 계산하고 함께 논의를 함으로써 상호 간의 책임감과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집단적으로 해야 할 일들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적절한 분공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공이 되거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집단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2)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교육교양의 내용

교육교양내용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북한식으로 구체화시킨 교육적 인간상으로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이끌어 갈 천리마

28)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된것으로서 인민경제발전의 강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었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다만 생산혁신자들일뿐아니라 재능있는 관리일군들이며 능숙한 조직자들이며 참다운 공산주의교양자들입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02~203쪽.

기수가 갖춰야 할 역량, 품성, 태도들을 묶어서 범주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교양내용은 공산주의사회의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앞장서서 구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천리마기수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의 특성을 나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혁명화하여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계급화 즉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산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집단과 조직을 절대시하는 집단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정체성이 확고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르면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한 부르쥬아사상을 빼고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사상의식을 높이다는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혁명화한다는것은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말합니다.”²⁹⁾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 혁명화란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주체적 인간, 혁명가란 공산주의사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김일성은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거해서 모든 인민이 모든 사람들을 혁명가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³⁰⁾

29)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97쪽.

30) “우리는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잘 교양하여 그들의 혁명적 각오를 더욱 높이며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47쪽 재인용.

그런데 혁명화의 핵심적 요소는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이었다. 당과 수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정책을 잘 알아야하기 때문에 당정책교양이 강조되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혁명전통교양의 핵심적 요소였고, 혁명전통교양은 반드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결부되어서 진행되어야 했다.³¹⁾

북한의 혁명전통교양은 김일성의 사상, 정책, 조직노선, 교양교육방법, 사업방법, 사업작풍, 전략 전술, 항일유격대원들과 김일성의 관계에서 보여준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 김일성과 인민의 관계에서 보여준 김일성의 덕성, 항일유격대가 창조한 문학예술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었다. 북한주민들은 혁명전통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정치, 사상, 교육교양, 노동, 예술활동, 항일빨치산이 보여주었던 품성을 따라 배우고 계승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해야 했다.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항일빨치산들의 회상기였다. 이와 같은 혁명전통교양은 1969년에 등장하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 과목으로 계승되었는데 “김일성원수혁명활동”과목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영도의 현명성, 공산주의 덕성에 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가르쳤다.³²⁾

혁명전통교양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과 항일빨치산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서사공동체가 되었으며 이러한 서사는 북한 주민들의

31)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원칙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교육 전과정이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모든 사업은 학생들을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육성한다는 근본관점과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 목적달성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72쪽.

32) 여기서 혁명전통과 김일성의 전기가 사실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사실처럼 교육교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아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노동계급화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부르주아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어서 노동계급의식을 갖게 하고, 노동자들을 한 개인이 아니라 계급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표현으로서 노동계급화란 북한주민들이나 북한 사회문화를 노동자계급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노동계급화는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것”이다.³³⁾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혁명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일을 해야 했다. 즉 일하면서 혁명하고 혁명하면서 일을 해야 했다. 김일성은 노동계급화를 위한 계급교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계급교양사업은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 사업입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계급적 원수들과는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계급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물 불을 하기지 않고 투쟁하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³⁴⁾

그러나 김일성은 ‘노동계급화’보다는 ‘혁명화’를 중시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혁명화, 노동계급화’라고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김일성이 계급정책에 있어 노동자계

33) 사회과학출판사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291쪽.

34)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289쪽.

급출신, 노동경험보다는 혁명에 참가한 것을 더 중시하고 노동자가 되었다고 해서 노동계급화되는 것도 아니고 노동계급이라고 혁명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³⁵⁾

셋째, 김일성이 산지식인화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천리마시대에 산지식인이라는 말을 써서 북한의 교육교양의 방향을 제시한 적이 많이 있다. 김일성은 구지식인과 구지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중학을 나와야 중학지식이 있고 대학을 나와야 대학지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교 졸업증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지 문화수준과 지식수준이 문제입니다. (중략)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동무들이 대학신비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을 못나왔다고 하여 자기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대학을 나왔다고 하여 우쭐해서는 더욱 안됩니다.³⁶⁾

산지식인은 북한의 현실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한 지식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현실이란 주체확립과 군중노선에 의한 사회주의산업화라는 목표지향적 현실을 의미했다.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나 지식인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학교

35) 북한의 전 주민들이 노동계급화되려면 협동적 소유가 모두 전인민적 소유가 되어야 하고 완전히 승리한 공산주의사회가 되어 무계급사회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건설단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김일성은 교육교양에 있어 노동계급의 노동에 대한 태도나 계급의식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중시하고 노동계급화를 주로 주관적 의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강운빈, 『인간개조이론』(서울: 도서출판 조국, 1989), 116쪽 참조.

36)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1958.11.2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601쪽.

교육도 산지식으로 채워져야 했다.³⁷⁾

북한은 산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9년 기술의무교육이라는 학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학제는 세계 유일한 단선형학제로서 정규학교를 외면한 중국의 경우나 복선제를 유지한 소련의 학제와 달랐다. 산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 때 중국은 수학, 과학, 국어 같은 도구과목들마저 철저히 실용적이고 생활중심의 내용으로 채웠다.³⁸⁾

넷째,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교양을 통해서 집단과 조직을 절대시

37) “우리 학교교수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의 과정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산지식, 일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154쪽. 산지식이라는 말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38) 북한이 사회주의로 개조하기 이전의 학제에서는 중등교육이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나뉘어 있었다. 고급중학교는 지금의 인문계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학교, 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이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문학교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해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1957~61)이 시작되었다. 전문학교와 대학에서는 기사, 기수를 더 많이 양성할 것이 요구되었고, 1958년부터 초급중학교 졸업생을 교육시키는 2년제 기술학교가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기술학교는 종전의 전문학교를 대체하게 될 교육기관으로 광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 화학, 경공업, 건설, 수산, 농업학교가 건설되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은 노동을 통해 5개년 계획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고급중학교가 있는 한 고급중학교를 포함한 인민학교도 일제시대부터 있어왔던 입시위주교육, 시험위주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급중학교가 있는 한 학력사회라는 과거의 유물도 없앨 수 없었다. 2년제 기술학교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었다. 김일성은 입시위주교육, 시험위주교육은 학교를 주입식교육, 암기만 하는 교육, ‘글뒀주’를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1959년 10월 최고인민회의의 제2기 제6차 회의에서 고급중학교를 폐지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김일성은 남한의 인문계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를 없애고 2년제 기술학교 2년제 고등기술학교로 대체함으로써 비로소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하는 집단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집단주의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사상교양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으로서 독립시켜서 설정해야만 할 것 같다. 공산주의자가 곧 조직사회주의자, 집단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민들은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모두가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다. 학생들에게도 집단주의와 조직생활이 중요했다. 소년단, 사로청과 같은 단체활동이 중요시되었다. 모든 단체활동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천리마운동의 구호를 따라야 했는데, 조직사회주의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했다.³⁹⁾

다섯째, 천리마기수들은 국가 정체성이 확고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애국자의 특징이 민족주의적 애국자, 국가주의적 애국자와 다른 점은 혁명전통, 사회주의제도와 체제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치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이 궁극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의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논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⁴⁰⁾

39)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로 교양하는것은 사람들의 집단생활과 조직생활과정에서 가장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305쪽. 이러한 단체활동 지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1968년에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들에 사로청 및 소년단 건설강좌들을 개설하였다.

40)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져야 하며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어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투쟁에 동원될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

이것은 통일조국의 유일한 지도자는 김일성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념으로 갖는 사람을 양성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여섯째, 천리마기수들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김일성은 사회주의 생활양식교양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교양이란 사회주의에 어울리는 예절과 도덕을 갖춘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생활양식 교양의 목적은 ‘공산주의도덕품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년단원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습관화하도록 제도화하였다.⁴²⁾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한 도덕과 품성은 1965년의 농업근로자 동맹 규약의 한 항목(제1장 7항)에서 보듯이 “동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진실하게 생활하여야 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레절이 바르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안일하고 해이한 현상들과 온갖 낡은 습관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검박하며 공명과 허풍을 버리고 솔직하여 한다”로 요약되어 있다.⁴³⁾

대학용』, 324쪽.

41) 이것을 흔히 정통성교육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혁명전통교양이 정통성교육의 역할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42) 김일성,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1971.6.6.),” 『김일성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97쪽. 공산주의도덕품성은 김일성이 명명한 ‘인민적 사업작풍’, ‘인민성’이라는 것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43) “농업근로자 동맹규약,” 최종고, 『북한법』, 170쪽. 스탈린은 개인의 성공과 경쟁, 소비를 부추기긴 했지만, 인간의 도덕과 예절을 등한히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격렬한 계급투쟁을 이끌어 간 모택동은 도덕과 예절을 격렬한 계급투쟁에 방해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반해 북한은 인민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도덕적 인간을 중시하고 제도화 했다고 볼

이렇게 확립된 천리마시대 교육교양의 여섯 가지 범주는 그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산지식인을 강조하는 것에서 인텔리화로 바뀌고 혁명화에서 충실성교양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이 천리마시대에 확립된 원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⁴⁾

수 있다. 소련의 흐루시초프 노선과 모택동 노선에 대해 김일성은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1968.3. 14.)”라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우리는 낡은 사상을 하루이틀에 다 빼버리고 서두는 극단적인 좌경적방법을 반대하는것과 함께 수정주의자들처럼 사상혁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발전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리는 식으로 제멋대로 나가게 하는 <자유화>의 방법도 역시 반대합니다.”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103쪽 재인용; 1980년의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고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고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최종고, 『북한법』, 94쪽.

- 44)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 기술적 토대를 견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진행한다.” “조선로동당규약(1980.10.13.)” 최종고, 『북한법』(서울: 박영사, 1990), 91쪽. 천리마시대에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를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9년의 『교육학: 사범대학용』 공산주의교양의 하위항목에는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교양’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공산주의화 또는 공산주의교양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가장 포괄적인 목표로 규정하고 계급교양과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교양은 노동계급화로 묶었고, 집단주의교양은 집단주의자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은 애국자로 표현하였다.

3) 청산리방법: 교육교양방법

마르크스는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행위는 외부로부터 부여된 의무나 강제에서 벗어난 자발적 행위가 될 것임을 예견하였다. 그런 행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발적 노동이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자발적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은 레닌에게 계승되어 ‘집단을 위한 자원적(자발적) 노동’이라고 구체화되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발적 노동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형태로 토요노동, 농촌지원, 돌격대와 같은 이름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토요노동, 농촌지원, 돌격대에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 의무노동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의 의무로 받아들인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자각적이며 자발적인 주체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1958년에 발행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하여』의 주장에 따르면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노력과 생산품이 국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화로 야기되는 소외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⁴⁵⁾

45)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가 호소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투쟁 구호에 따라 로동자 농민들은 제 1차 5개년 계획 통제 수’자 예비안 토의에 한사람 같이 참가하여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의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원료, 기자재들의 소비 절약에 의하여 중요 생산품들을 증가시키고 제품 원가를 저하시켰다.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은 실로 방대한 내부적 예비를 탐구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것은 근로자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8), 44~45쪽; “오늘 조선 인민은 한사람 같이 《나의 공장》, 《나의 탄광》, 《나의 협동 조합》의 사업이 국가의 성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참가한 사업에서 얻은 성과는 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와 결부되어 있다는 의식으로써 충만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 계획을 수행하기

선동과 호소에 의해 쉽게 호응해서 동참하는 자발적 노동과 달리, 자각적 노동은 교육교양에 의한 반복된 학습이 있어야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자각적 주체는 반복된 교육교양, 습관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치밀한 교육교양과 선전선동을 통해서 자각적 과정을 통해 자발성을 지닌 주체를 만들어야 했다. 자발성이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각적이라는 말이 자발성을 대신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자각을 통한 자발이라고 봄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김일성이 제시한 것이 청산리방법이었다.

청산리방법에는 지도와 대중에 대한 김일성의 독특한 관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자신에 의해 재해석 된 혁명전통에 따르면 김일성은 조선인 중에서 최초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깨달은 사람이었다. 마르크스, 레닌도 몰랐던 것까지도 깨달은 사람이었다. 김일성전기에 따르면 김일성에게는 이렇다 할 큰 스승이 없었고, 역할 모델도 없었다. 주로 스스로의 학습과 혁명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다. 김일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고, 어려서부터 성인이고 혁명가였다. 김일성의 교시는 경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수령이 없는 당은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같습니다. 현명한 수령이 없는 당은 진정으로 노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으며 또한 당의 옳은 정치적령도를 떠나서는 노동계급은 인민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

위한 투쟁에서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합치되며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들에서의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헌신적인 노동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하여』, 49쪽.

울수 없으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수 없습니다.⁴⁶⁾

여기에서 학생 즉 대중을 보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시각차이가 나타난다. 흔히 이것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서는 지도와 대중과의 관계라고 한다. 정치지도자나 공산당이 지도와 대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당과 대중의 관계, 지도자와 대중의 관계가 규정되었고 사회주의국가들의 군중노선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지도와 대중의 관계에 대한 관점들의 근저에는 인식론에 대한 관점들이 놓여 있다. 모택동의 인식론에 따르면 대중이 1차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나온 의견이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지식인들이 그것을 체계화시켜 2차적인 이성적 인식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지식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대중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2차적 인식이 맞는지를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무한하게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진리는 대중에게 있고 지식인은 대중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반추해야 할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수령이나 지식인들이 대중보다 먼저 깨달은 존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민은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은 존재인 것이다. ‘깨달아야 한다’, ‘깨닫게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지식인의 아편이고 죄를 쌓는 길이 되는 것이다.⁴⁷⁾

그런데 천리마운동이 일어날 당시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은 구태

46)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69쪽 재인용.

47) 모택동, “지도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모택동, 『모택동선집 3』(서울: 범우사, 2007), 135~137쪽. 이러한 모택동의 인식론은 선종 특히 육조 혜능의 불교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모택동은 평소에 『육조단경』을 즐겨 읽었다고 한다. 이은윤, 『육조 혜능평전』(서울: 동아시아, 2004), 213~232쪽.

의연한 교수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나 학습에 있어 자각을 통한 자발은 불가능하였다. 김일성이 보기에는 교수방법에 있어서의 교조주의요 형식주의가 자각, 자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장애물이었다. 김일성은 교조주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글뒤주’를 만드는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야 하고, 주체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이 구현되려면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여러 번 설파하였다.

1969년 발행된 『교육학: 사범대학용』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교수사업에 관철됨으로써 교원들이 학생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실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들을 아버지 심정으로 도와주고 지도하는 혁명적 기풍이 더욱 철저하게 확립되어갔고, 교수사업에서는 사상정치교양이 강화되어 학생들과의 사업이 심화되었으며, 교수에서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업기풍이 확립되어갔으며, 교수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 지도가 옹결 결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깨우쳐주는 교수법은 높은 당성과 계급성, 공산주의적 목적지향성으로 일관할 것, 교원과 학생의 높은 정치사상적 열의에 기초한 자각성, 교재서술의 엄밀한 체계성과 순차성, 교수의 직관성을 일반적인 요구사항으로 나열하였다.⁴⁸⁾

청산리방법은 위사람이 아래 사람을 책임지고 도와줘서 아래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교육에 적용하면 교사는 위사람이 되고 학생은 아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청산리방법을 교수교양방법에 적용하게 되면 이는 위사람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춰 순차적으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아래

48)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 165~169쪽.

사람인 학생들의 자각성을 책임지고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라는 뜻이 된다. 이로써 김일성은 교육교양방법에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육교양방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산리방법은 천리마시대의 교육교양방법에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학급관리를 책임진 교사들의 리더십개선이나 학교관리를 책임진 교장이나 행정관리들의 지도방법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교양방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단위학교 내에 교사들로 이루어진 분과가 천리마작업반이라는 호칭을 받으려면 리더십으로서의 청산리방법을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깨우쳐주는 교수법, 깨우쳐주는 교양을 실천해야 했던 것이다. 교사는 학급과 수업활동의 최고 리더인 셈이기 때문에 학급의 관리하고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데 있어 청산리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청산리방법이 교육교양방법에 영향을 준 인과관계를 ‘김일성에 의한 리더십개선으로서의 청산리방법의 제시 → 청산리에서 구체적으로 김일성이 보여준 여러 가지 교육교양방법의 모범 → 교육성의 관료들이 산하의 학교들을 관리하면서 보여준 교육교양방법 → 교장, 교감이 교사들에게 보여준 교육교양방법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준 교육교양방법 → 천리마 학급의 학생리더들의 교육교양방법’으로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49) 청산리방법의 효시가 되었다는 김일성의 연설인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1960.2.23)”에는 깨우쳐 준다는 말과 그 구체적인 교양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당사업에서 기본은 이런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입니다. 알든 모르든 덮어놓고 하라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록 반드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옳은길을 가리켜주어야만 모두가 확신성있게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은 이와 같이 꾸준히 당원들을

1969년 발행된 『교육학: 사범대학용』에서는 구체적인 교수방법으로는 1. 언어적 교수방법(이야기), 해설과 담화방법/토론과 논쟁의 방법/독서방법(책을 이용하는 방법) 2. 직관 및 실물교육방법(연시방법/관찰방법) 3. 실험실습방법 4. 연습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교양방법으로는 1.교양방법의 기본(해설과 설복의 방법,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방법, 실천활동을 통한 교양방법) 2. 교양사업의 조직과 지도(《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을 통한 교양, 교수 및 과외생활을 통한 교양, 조직생활을 통한 교양, 사회정치활동을 통한 교양, 《모범분단》 및 《천리마학급》 운동을 통한 교양)을 나열하였다.

한때 북한에서는 교수방법의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적인 교수법을 계발식교수법이라고 했고 그것은 청산리방법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래 계발교수법이라는 명칭은 주입식교육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사회의 교수방법 특히 아동중심의 비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교육교양방법이 주입식교육과도 달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교수방법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계발교수법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와 같은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법은 교육교양에 있어서의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기에 북한 사회

교양하여야 하며 군중을 깨우쳐주어야합니다.” 김일성,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1960.2.23.),” 백두연구소 엮음,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138쪽.

50) 권대경, “계발식 교수: 이는 교수에서 청산리 방법의 구현이다,” 『인민교육』, 1961년 7월, 45~46쪽; 조선로동당출판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교육 편)』(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82~109쪽; 김수진, 『주체의 교육론』(도쿄: 학우서방, 1992), 212~213쪽.

에 뿌리를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김일성이 작성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9.5.)에 사회주의교육교양방법으로 제시된 4가지 방법(1.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2.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3.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4.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의 하나로써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교육교양방법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5. ‘북조선인’의 탄생

김일성의 디자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주체의 교육학에 통일단결의 정치, 통일단결을 통한 인간개조가 더해지면 북한 주민들은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수령에게 호응하고 동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과 항일빨치산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서사공동체로서 집단정체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집단서사에 준해서 개인서사가 만들어지고 개인서사가 개인정체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과 통일단결의 조직사회주의로 인해 강고해진 북한사회의 응집력과 그 응집력에서 쉽게 이탈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천리마시대의 교육교양의 성패를 명확하게 측정하거나 확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만 성공의 측면과 실패의 측면을 각각 살펴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우선 성공의 측면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운동으로 나는 60년대에는 거의나 집에 들어가는 날이 없었어요.

병원이 내 집이었죠. ... 후에도 정성운동은 무의무탁인 나를 외롭지 않게 하였지요. ... 평양에서 후에 지방으로 내려와 우리 지역은 탄광지역이라 시도 때도 없이 CO가스 폭발사고가 잦았어요. 그럴 때마다 수많은 화상환자들이 생겨났고, 이 때 마다 우리 군안의 보건일군들은 전체가 비상소집하여 치료중단하고 그곳 병원에 가서 피부이식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우리 병원 성원들은 물론 우리 병원 일가족까지 평균 3~4점의 살점은 다 뺐지요. 심지어는 허벅지 피부로 모자라 팔의 상박 피부까지 최고 10여 점의 피부이식한 보건일군들도 꽤 됩니다. 저의 딸은 엄마대신 자기가 하겠다고 몰래 따라와 5점이나 떼 나를 감동시켰었지요.⁵¹⁾

이러한 측면은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만길은 『통일시대 북한교육론』에서 북한 주민들의 성격과 태도의 특징으로 기초적 생활규범은 습득,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은 확실, 배타적이고 맹종적인 집단인식, 수동성과 타율성, 단순성과 순박성, 인정과 의리라고 나열했다.⁵²⁾

즉, 정치사상적으로는 적개심에 차 있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지극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모습은 천리마시대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리마시대는 북한 사회주의 교육학, 북한 사회주의교육교양의 내용과 방법, 교육적 인간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천리마기수’ 또는 ‘천리마기수’와 유사한 ‘북조선인’들이 탄생한 것이다.⁵³⁾

51) 이혜경,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92쪽 재인용.

5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이것은 천리마시대의 북한교육이 일부 계층에게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북조선인’의 모습은 타자의 눈에 비친 공식적인 모습이고 ‘공식적 교육과정’상의 ‘교육적 인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조선인’의 비공식적인 사적공간에서의 모습이나 ‘실현된 교육과정’이 보여주는 ‘인간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의 교육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과 실제의 인간상은 격차가 있거나 부족할 수도 있다. 부적응이나 이탈의 형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⁵⁴⁾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교육학이 제시한 교육내용이나 교수방법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북한

53) 남한에서도 새로운 국가수립과 함께 요구되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이 일찍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승만은 1949년에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삼은 교육법의 제정·공포로 국민 교육 제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교육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목적이 최초로 설정되어 명문화되었다.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교육의 기본이념을 설정하였다. 교육적 인간상으로는 ① 민주적인 사회개조를 위한 자주적 인간, ②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생산적 인간, ③ 생활의 합리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과학적 인간, ④ 민족의 독립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평화적 인간을 길러내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새 나라의 한국인을 만들어 내는 데는 남한의 각급 학교에서 1955년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도덕’과목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박정희가 1962년에 쓴 『우리 민족의 나날 길』에서는 박정희는 소박, 근면, 정직, 성실 등을 한국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요구하였다. 신형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서울: 삼인, 2003), 92쪽, 주 18; 박정희가 1978년에 쓴 『민족중흥의 길』에서는 자주정신, 조화의 정신, 창조의 슬기가 우리 민족 고유의 유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서울: 광명출판사, 1978), 11~34쪽.

54) 부적응과 이탈 현상에 대해서는 이은죽의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에서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다.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법문사, 1993), 277~286쪽 참조.

의 ‘교육적 인간상’이나 ‘공식적 교육과정’의 오류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북한교육의 모순, 북한 사회의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천리마시대 공산주의 새 인간육성의 실패의 측면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주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① 당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아직도 그 본질을 똑똑히 모르고 있다”는 것, ②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③ 당 사업에서 해설과 설복 대신 아직도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④ 일부 기업소의 지배인, 당 비서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고 대중의 통제를 벗어나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 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것, ⑥ 일부 일꾼들은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⑦ 이들은 아직도 사회의 집단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장과 협동조합에 있는 버스나 화물자동차를 개인승용차처럼 타고 다니는 현상이 있다는 것, ⑧ 또한 일부 협동농장 초급간부 중에는 일은 적게 하고도 노동공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며 노동자, 사무원 가운데서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노임과 식량을 제대로 다 타먹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 등이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상혁명의 투쟁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55) 양호민, “3대혁명의 원류와 전개,” 양호민 외 엮음, 『북한사회의 재인식1』(파주: 한울, 1987), 179쪽.

천리마운동 때처럼 김일성에 의해 다시금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사대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기관본위주의, 이기주의 등이 공격당했다. 천리마시대, 천리마세대가 김일성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판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이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김일성이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나가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전반기에는 생산력발전과 사회주의적 분배에 의해 주어진 물질적 자극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자각적으로 노동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후반기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1968년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다.

1968년 이후 물질적 보답도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교양은 북한주민들의 자기정체성을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이들의 신념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에의 배려를 해야만 하는 성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주체적인 인간은 김일성이 말한 산지식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주체적인 인간은 초기산업화사회에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후기 산업화 사회 또는 탈산업화사회에는 적합한 산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이다. 바야흐로 북한도 산업화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으며 전세계적으로 탈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기존의 북조선인과는 다른 북조선인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 접수: 2017년 10월 20일/ 수정: 2018년 2월 20일/ 채택: 4월 9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김일성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김일성저작집 2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김수진, 『주체의 교육론』(도쿄: 학우서방, 1992).
백재옥,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조선로동당출판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교육편)』(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작업반운동』(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0).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대학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9, 학우서방, 번각 발행, 1971).

2) 논문

- 윤현, “대안 체계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 『근로자』, 제4호(1963)

3) 신문

- 『로동신문』, 2009년 9월 25일.
『인민교육』, 1961년 7월.

4) 기타 자료

- 사회과학출판사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광명대백과사전 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7).
『조선대백과사전 20』(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운빈, 『인간개조이론』(서울: 도서출판 조국, 1989).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 2004).
- 고승효, 『현대북한경제입문』(서울: 대동, 1993).
-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 루이링거, L., 『중국을 보는 제3의 눈』(서울: 소나무, 1995).
- 모택동, 『모택동선집 3』(서울: 범우사, 2007).
-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서울: 광명출판사, 1978).
- 백두연구소 엮음,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서울: 도서출판 백두, 1989).
- _____,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I』(서울: 백두, 1988),
-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서울: 태백, 1989).
- _____,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서울: 태백, 1989).
- _____, 『영도예술』(서울: 지평, 1989).
- _____, 『영도체계』(서울: 지평, 1989).
- 신형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서울: 삼인, 2003).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1』(파주: 한울, 1987).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돌베개, 2006).
-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법문사, 1993).
- 이은윤, 『육조 혜능평전』(서울: 동아시아, 2004).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3).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 _____,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3』(서울: 책세상, 2007).
- 전국철학교육자연대회의, 『한국 「도덕·윤리」 교육백서』(파주: 한울, 2001).
- 최성 엮음, 『현대사회주의비교연구』(서울: 학민사, 1990).
- 최성만·박태순 편역, 『뇌봉』(서울: 실천문학사, 1993).

최종고, 『북한법』(서울: 박영사, 1993).

프롬, 에리히(Erich Fromm),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냐』(서울: 문학세계사, 1985).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2) 논문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이혜경,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황재준, “북한의 ‘현지지도’연구: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8).

3) 기타 자료

“‘전망 결의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강호제 지음,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서울: 선인, 2008).

A Study on the North Korea's Education Edification in the Era of Chollima(1956-1972): The Birth of North Korean

Kim, Gyung Wook(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the era of Chollima(1956-1972), the development of productive power to transform the agricultural country into the socialist industrial country was contingent upon reforming North Koreans to be 'communist new people' who would be unified and centered around the leader himself, Kim Il-sung thought. To embody these thoughts, he promoted the Chollima Work Team Movement, which stressed establishing Juche and the revolutionary mass line.

The Chollima Work Team Movement was a mass movement which sought to increase the productive power and to reform all of North Koreans to becoming 'communist new people' through thought, cultural and technological revolutions in all sectors of society, including engineering, agriculture and education.

Likewise, North Korea made their own socialist system different from

Stalin's. It's also an educated person what makes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n social system and Stalin's. 'communist new people' is the 'educated person' that socialist pedagogy requires. The Chollima rider was the model of North Korean educated person. Stalin's educated person is an efficient technician of Stakhanov type. On the other hand, the Chollima Work Team leader rider had to be capable of leading thought, cultural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of team crew members. For that, he should have a belief in the communism and master technics as well as enhance cultural attainment. The Chollima Work Team leaders were the successful model of the 'North Koreans' and the Chollima Work Team Movement was the practice to make a new identity for 'North Koreans', who became living in Social system. 'North Koreans'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was generated in North Korea through the practice.

Keywords: North Koreans, communist new people, Chollima Work Team Movement, Chollima rider